북악의 내일을 만듭니다

국민대신문

제961호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2019 대동제

지난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2019 대동제가 열렸다. 총학생회는 △상설거리 △연예인 공연 △동아리 공연 △푸드트럭 야시장 △관현악 전공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영화제 △북악컵 결승 경기 △국민 갓 탤런트 △예술대학 주관인 버스킹 거리 노래방 등 다양하고 신선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또한 '총학생회 페이지 좋아요'를 인증하고 게임을 통해 상품을 주는 등의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작은 이벤트들도 진행됐다. 총학생회는 "올해 주점 운영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북악컵 전 경기와 영화제를 축제 기간에 진행하고, 단과대, 학과 학생회의 협조를 받아 가요제,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축제 때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축제 안내 브로슈어를 제작했고 상설거리와 야시장 배치를 자세히 표시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올해 가수들의 라인업이 공개된 후 오직 '국민대 학부생'만 입장 가능한 구역을 만들어달라는 많은 학부생들의 요청으로 14일, 15일 이틀간 농구코트 무대 앞쪽에 '국민존'이라는 우대석을 만들어 학생증, 종합정보시스템, K-push+ 앱 등을 이용해 우리학교 학부생임을 확인 후 입장할 수 있게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총학생회에서 주점을 운영하지 않게 돼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몇몇 단과대끼리 16일(목), 17일(금)에 주점을 운영했다. 사회과학대학, 글로벌인문·지역대학, 법학대학에서는 조형대 뒤편에서, 예술대학, 경영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예술관 앞 노천극장에서 주점을 운영했으며 조형대는 17일(금)에 클럽을 운영하여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정주은(의상디자인·18)씨는 "조형대학 클럽에서 학생증 지참 시 술을 공짜로 제공해주는 이벤트도 해서 축제를 한층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을 여러 대학에서 많이 기획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했다. 김철우(나노전자물리·19)씨는 "푸드트럭 간의 간격이 너무 협소해 부분적으로 이동이 불편해서 좀 더 여유로운 공간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쓰레기통 근처 역시 청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총학생회와 미화원이 축제 기간 내내 청소를 해야 했다. 사태가 이러하자 총학생회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입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쓰레기통을 비치했다.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연예인 공연 시 바리케이드 관리와 야외 영화제, 야시장 순찰에 필요한 스태프를 모집하는 등 학부생들이 안전하고 재밌는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만큼 다음 축제에는 사전 홍보에 더 힘쓰고 학부생들이 지적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학우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동제가 학생들에게 전례 없이 좋은 반응을 얻은 가운데 가을 축제에서도 더욱 재밌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계속해서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윤정 기자

제20회 전국 고등학생 조형실기대회 개최되다

▲ 조형실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참가자들

우리학교가 5월 11일(토)와 12일(일), 양일에 걸쳐 '제20회 전국 고등학생 조형실기대회'를 개최했다. 디자인 계열의 전공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우리학교 조형실기대회는 기초조형, 발상과 표현 두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4915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학부총장과 조형대학장, 대외협력처장 등 교무위원들이 직접 쿠키와 커피, 주스, 아이스티 등 다과를 나눠주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한편, 학생들이 대회를 치르는 동안 학부모들이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학술회의장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조형대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미 조형대학장은 "디자인 계열의 입시를 준비하는 일은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힘든 일인데, 실기대회를 위해 동행하신 많은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작은 성의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조형대학의 디자인과 공예 분야에 대해 직접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도 디자인에 관심 있는 창의적인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에게 향후 우리학교 입학 시 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면학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선 이상 입상자에게는 우리학교 미술·조형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윤서영 수습기자

장학하랑단과 함께하는 장학설명회 열려

▲ 1차 장학설명회 현장

지난 5월 13일(월)과 22일(수) 장학하랑단이 진행하는 1·2차 장학설명회가 복지관에서 열렸다. 3차 장학설명회는 27일(월) 18시에 진행된다. 장학하랑단은 학생지원팀이 장학 제도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작년에 출범시킨 교내 장학 서포터즈다. 장학하랑단은 학생들로 이뤄져 있어 학생들에게 같은 눈높이와 공감대로 장학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차 장학설명회였던 '대학생활탐구 0교시 장학금 영역'은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기본적인 장학 제도부터 우리학교만의 장학 제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았다. 장학설명회에 참여한 천단윤(유라시아학·19)씨는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려줘서 도움이 됐다. 특히 국민대를 다닌 선배만 줄 수 있는 교내 장학금에 대한 꿀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장학설명회를 진행한 장학하랑단 이종원(언론정보·10)씨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는 장학금이 많다. 물론 큰 추세는 소득분위 중심의 장학 제도이지만 해당하지 않는 학우들도 장학금을 준비할 수 있다."라며 "몇 학년이든 어떤 상황이든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장학금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장학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보 제공은 물론 동기부여 역시 설명회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장학설명회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장학하랑단은 2학기에도 장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주빈 수습기자

성곡브런치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성곡도서관과 예술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도 1차 성곡브런치 콘서트'가 지난 5월 8일(수) 성곡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성곡브런치 콘서트는 우리학교 구성원이 클래식 음악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예술대학 음악학부가 성곡도서관과 함께 매년 2회씩 주최하는 공연이다.

이번 1차 성곡브런치 콘서트에서는 윤영화(음악)교수와 이선경(음악)교수의 'Lieder ohne Worte' 피아노 합주, 윤철희(음악)교수와 박유리(음악)교수의 'Song To The Moon'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선 성곡도서관장을 비롯해 교수, 학부생, 졸업생, 교내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연주와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을 관람한 오정택(정치외교·19)씨는 "진입 장벽이 높은 줄 알 았던 클래식 음악을 대학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신선했다. 성곡브런치 콘서트 같이 교내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윤철희(음악)교수의 피아노 연주 모습

다음 공연인 2019년도 2차 성곡브런치 콘서트는 오는 5월 29일(수) 낮 12시에 성곡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상욱 수습기자